

# 전남도, 수급조절용 벼 재배 추가지원... 쌀값 안정 총력

전라남도는 쌀값 정상화와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월 말부터 전략작물직불제 신규 품목인 '수급조절용 벼' 재배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시에 가공용도로 제한해 시장격리하고, 밥쌀 공급이 부족한 유사시 시장에 공급해 쌀값의 급격한 변동을 막는 '수급 안전판' 역할을 한다.

최근 쌀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난해까지 눈에 벼 대신 논콩 등 논타작물을 재배했던 농가들이 다시 벼 재배 회귀를 고민하고 있어 쌀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전라남도는 정부의 '수급조절용 벼'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ha당 500만 원의 도 자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ha당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수급조절용 벼의 ha당 계약 물량은 조곡 158포 생산을 가정한 경우 ▲전략작물직불금 500만 원 ▲쌀 판매대금 546만 원 ▲전남도 추가지원금 50만 원을 더해 1천 96만 원 수준으로 조곡 40kg 기준 6만 9천 원 정도다.

계약물량 외 추가로 생산되는 쌀은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참여농가는 향후에도 우선 참여권이 부여돼 장기적으로 안정적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 참여를 바라는 농업인은 2월 말부터 읍

ha당 50만원... 쌀 적정생산·소득안정·지역RPC 수익향상 기대  
읍면동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시군별 정부지원 RPC와 계약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고, 시군별 정부지원 RPC와 수급조절용 벼 출하계약을 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비 추가 지원으로 전년도 쌀값 대비 낮은 지원금액을 보완

해 농가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적극 활용해 참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과 RPC의 관리비 추가 매출 확보, 쌀 과잉생산 억제 등 1석 3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시군·참여 RPC와 함께 마을 단위 설명회를 개최하고,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농가 참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염선호 기자

# 작년 호남 청년 2만명 떠났다 생산·고용 주요 경제지표 하락

호남지방데이터청 자료, 작년 15~34세 2만여명 순유출  
전남 대부분 지표 하락... 유일하게 1334명 인구순유입

지난 한해 호남권 청년 2만명이 타지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과 건설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도 전년에 비해 일제히 하락했다.

국가데이터청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5년 4분기·연간 호남권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지역 인구는 1만5919명이 순유출됐다. 인구 순유출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전출 초과 상태를 말한다.

지역별로는 광주(-1만3678명), 전북(-3575명)은 순유출됐고 전남(1334명)만 순유입됐다.

특히 20대(-1만5760명), 10대(15~19세 -2325명) 30대(30~34세 -2002명) 등 2만87명이 순유출됐다. 타지로 떠난 청년층이 2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호남지역 생산과 건설, 소비, 고용 등이 모든 경제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주는 생산, 수출, 고용부문에서, 전북은 건설수주, 수출분야에서 각각 상승했다. 전남은 대부분 분야에서 하락했다.

지난해 호남지역 공공업생산은 화학제품 등의 생산이 줄어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전남(-3.1%)과 전북(-1.6%)은 감



소한 반면, 광주(9.4%)는 증가했다. 지난해 호남지역 건설수주 역시 건축공사 수주가 줄어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지역별로 광주(-53.1%)와 전남(-13.5%)은 감소, 전북(63.0%)은 증가했다.

수출도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같은 제품 등의 수출이 줄어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지역별로 전남(-8.9%)은 감소, 광주(12.6%)와 전북(1.8%)은 증가했다.

지난해 호남지역 고용률은 63.4%로 전년 대비 0.2% 포인트 하락했다.

전남(-0.5%포인트)과 전북(-0.5%포인트)은 하락, 광주(0.2%포인트)는 상승했다. /신종팔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2년 연속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협력사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한수원은 25일(수)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서울 용산 피크앤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상생협력사업 협약식에서 2년 연속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한빛원자력본부, 월성원자력본부 등 두 곳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한수원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과 상생 노력이 공공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

가를 받았다. 한수원은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발맞춰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조성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수원은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컨설팅, 운영·환경질환 예방 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해왔다. 또한 모든 원전본부에 체험형 산업안전교육장을 운영하여, 한수원과 협력회사 직원들 외에도 참여를 원하는 일반



인에게 수준 높은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발

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생활 속에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미소금융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며, 광역시 가운데 광주와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대출이자 4.5%를 1년간 전액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 광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자' 전액 지원

작년보다 예산 2배가량 늘려 2억5000만원... 연이자 4.5% 지원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을 전년 대비 1억1000만원을 증액한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광주지역 소상공인 중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

설계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등을 대출받은 경우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2024년~2025년 미소금융

신규 대출자가 2025년에 납부한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광주지역 7개 미소금융 수행기관(광주북구법인, KB, LG, 삼성, 신한, 우리, 현대차미소금융재단) 또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을 방문하거나 광주광역시기업지원시스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기업지원시스템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채일 기자

# 광주시, 영농현장 맞춤형 컨설팅 참여자 모집

농업기술센터 3월6일까지 3개팀... 작목별 종합진단·개선 지도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2026년 영농현장 맞춤형 컨설팅' 참여팀을 오는 3월6일까지 모집한다.

'영농현장 맞춤형 컨설팅'은 이상기후와 노동력 부족, 경영비 상승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영농 현장의 애로사항을 종합 진단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 규모는 3개 팀, 30명 내외다. 팀별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동일 작목 중심으로 신청해야 한다. 대상은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광주시에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이다. 시설채소, 과수 등 작목별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은 서류심사로 진행한다. 컨설팅 목표의 타당성, 경영관리 역량, 팀 구성의 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우인 기자

신청은 광주농업기술센터를 방문(광산구 평동로 639-22)하거나 전자우편(kimchuho1@korea.kr)으로 하고, 신청서와 컨설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고문이나 소득경영팀(☎062-613-52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된 팀은 전문가와 함께 작목별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받는다. 생육·환경·병해충·경영 분야를 종합 진단하고 단계별 개선 지도를 추진한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등 농가의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며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우인 기자



싱그럽다  
꼭성스럽다

자연속의 가족매일 꼭성